



CEO
칼럼 _

상생의 정신으로 2007년을 맞이하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01

Kim Hong Kuk

2006년의 새해가 밝았다. 동쪽 하늘을 박차고 솟아오른 새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하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다짐들이 모두 뜻하신 바대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닭띠 해였던 2005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 우리 업계는 특히 희비가 엇갈리는 나날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해가 시작됐지만 시장여건이 호전되면서 조기에 상황이 반전됐고 관련 업체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덧붙여져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또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이 이어져 계열업체와 협력농가들이 동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육계 사육수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황이 최고조에 이를 즈음 조류인플루엔자

의 공포가 엄습했다. 실제없는 위협들이 과도하게 유포되면서 전체 업계가 또 한차례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국내에서는 발병의 기미조차 없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과대 보도들이 닭고기 소비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고 닭고기 관련 업체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말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우리는 소비자의 마음이 살얼음처럼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육계의 사육과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는 결코 위험요소가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만큼 전문적이지도, 느긋하지도 않다. 올 한해 계육협회는 물론 계육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힘을 모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산업은 이제 종전보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들을 제시받고 있다. 법과 제도의 강제나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수동적 자세로는 계육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닭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기준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최상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국산 닭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이 소비자들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확보한다면 수입산 닭고기는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올해부터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이 시행되고 지난해 결성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협회가 닭고기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표로 출범했듯이 육계의 생산과 가공,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해야 한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 배타적 이익을 취하거나 목소리를 홀로 높여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 쌓을 수가 없다. 계육산업 종사자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소비자의 요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식품안전에 관한 한 무한책임을 공동 감수해야 한다.

올해에도 많은 난관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힘을 모아 난관을 헤치고, 지혜를 모아 도전에서 승리해 활짝 웃는 얼굴로 2007년을 맞이하자. 